



개는 예로부터  
우리와 함께 생활  
해 온 가족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친숙한 동물 중 하나로, 우리의 문화, 역사, 이야기 속에서 다양하게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 속 지명의 유래와 전설에서 견(犬), 구(狗), 술(戌) 등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명 속 우리와 친숙한 개 이야기

국토지리정보원은 2010년 호랑이(경인년, 庚寅年)를 시작으로 매년 우리 국토 속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개의 해를 맞아 우리와 친숙한 동물인 개와 관련된 지명을 통해 우리 국토에 스며있는 문화·역사적 특성과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는 시간으로는 술시(오후 7시~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방위신이자 시간신입니다. 개는 주로 민첩성, 용맹성, 끈기를 갖춘 영리한 동물로 대변되며 이 방향과 시각에 오는 사기(邪氣, 주술적으로 나쁜 기운)를 막는 동물신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술시는 날이 어두워져 개가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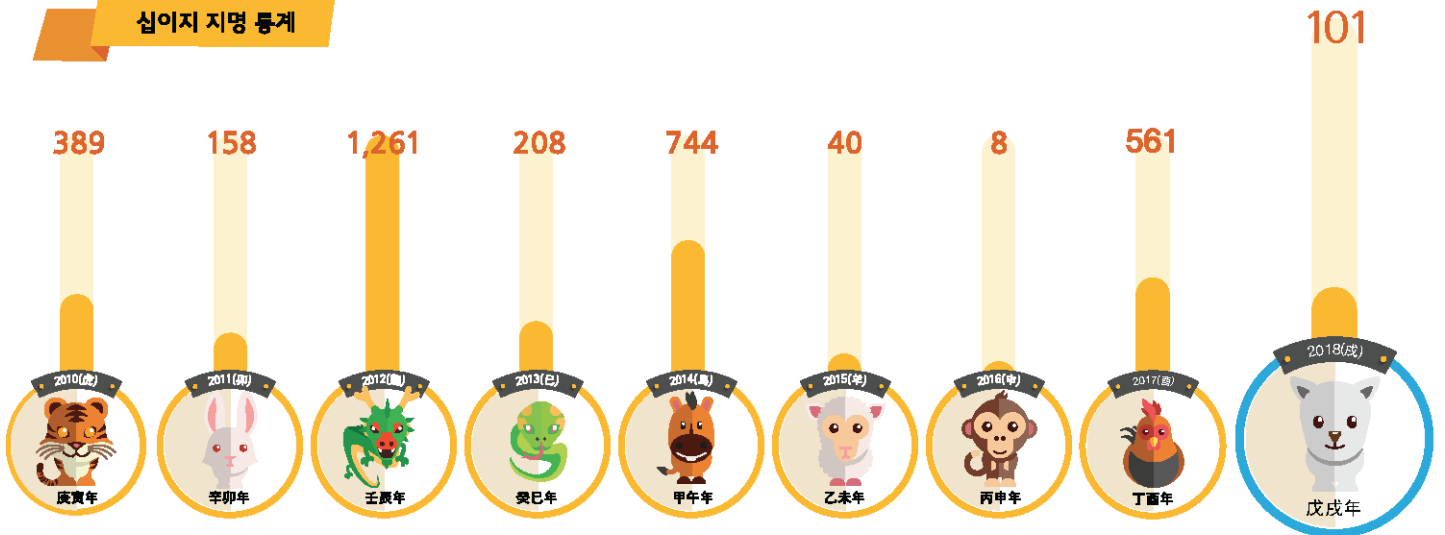
개는 예부터 우리 생활에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동물로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합니다. 다른 어느 동물보다 인간을 잘 따르고 충성심과 경계심이 강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온 동물 중 으뜸으로 꼽혀왔습니다.

2018년을 대표하는 개와 관련된 지명은 전국에 약 10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명의 유래, 지역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지명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용, 말, 호랑이, 닭, 뱀, 쥐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화 속에 그려진 우리의 개 「이암의 강아지」  
(출처: 오수개, 오수개 연구위원회)

십이지 지명 통계



대표적인 십이지 띠 지명 통계

개와 관련된 지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27곳, 충남 17곳, 전북 15곳, 경남 14곳, 경북 9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명의 종류별로는 거주, 섬, 산, 고개 순으로 지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밖에 지명별 분포내용을 살펴보면 개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구와’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개목’, ‘개섬’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를 상징하는 다양한 한자표기를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자인 ‘견(犬)’과 ‘구(狗)’를 비롯하여 낯설지만 ‘오(獒)’, ‘망(尙)’, ‘술(戌)’로도 표기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기를 같이 살아온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으로 속담, 설화 등을 담은 지명으로 전국에 전승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인간과 가장 긴 시간을 함께 지내온 동물로 의리와 충성심이 강해 집과 사람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주인을 구했다는 ‘의견(義 의로울 의, 犬 개견)’과 관련된 지명은 오랜 시간 전해지고 있습니다.

### 개, 예로부터 주인을 향한 충성심, 의리 있는 동물로 여겨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인간과 가장 긴 시간을 함께 지내온 동물로 의리가 깊고 충성심이 높으며, 집과 사람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주인을 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병천리에는 개와 관련된 옛 지명을 품은 고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촌부가 개를 데리고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 술이 취한 채 고개를 넘는 도중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주위의 산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나 자신의 주위만 불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산불이 나자 개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근처 도랑으로 가서 제 몸을 적셔 불끄기를 되풀이 하여 주인을 구하고 자신은 불에 그을린 채 희생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 개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이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져 의구비(義狗碑)를 세우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이곳을 개목고개 또는 구항령(狗項嶺), 개미기 등으로 불리고 있는 고개입니다.



오수설화에 등장하는 김개인 생가



의견비(전북 임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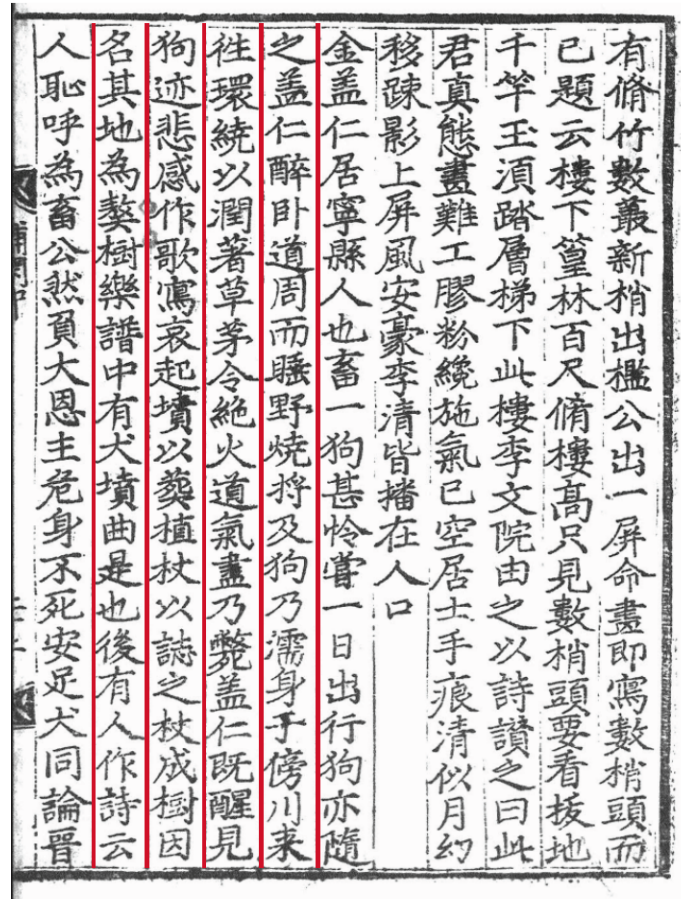
충직한 개나 의구비에 관한 전설,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그 시초는 고려시대 문인 최자(崔滋, 1180~1260)가 쓴 『보한집(補閑集)』에 실려 있는 「오수(樊樹)설화」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신(殺身)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으로서 도리를 되새기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의리 있는 개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충남 천안시 '개목고개', 전북 고창군 '개비골'이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인을 구하였다는 '의견(義 의로울 의, 犬 개견)'과 관련된 지명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보한집』권중(卷中)편 오수설화

김개인(金盖仁)은 거령현(居寧懸) 사람이다.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매우 귀여워했다. 어느 날 외출하는데 개도 또한 따라 나섰다. 개인이 술에 취해서 길가에 누워 잘 때 들불이 장차 번져 오게 되었다. 개는 곧 곁에 있는 냇물에 몸을 적셔 주위를 빙 둘러 풀과 잔디를 적시어 불길을 막아 놓고는 기운이 다하여 그만 죽고 말았다. 개인이 잠에서 깨어나 개가 한 자취를 보고는 슬프고 감동해서 노래를 지어 슬픔을 기록하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낸 뒤에 지팡이를 꽂아 이것을 표했다. 그런데 이지팡막대가 나무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땅을 이름하여 오수(樊樹)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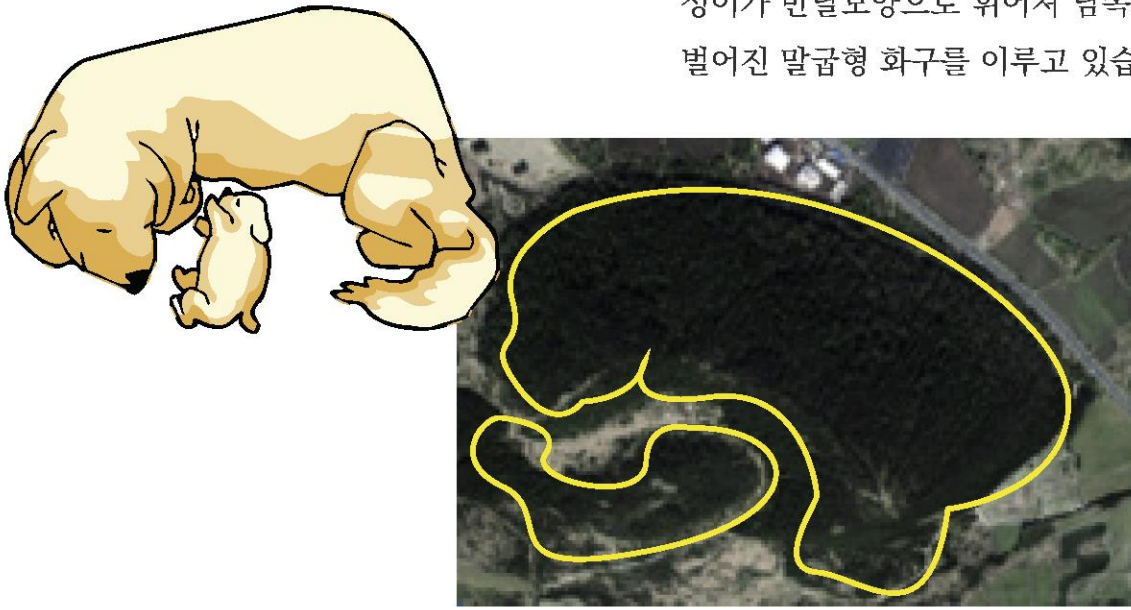


『보한집(奎4580)』에 수록된 오수설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렇듯 오랜 옛날부터 우리와 친숙한 개는 다양한 유래와 전설로 우리 국토의 지명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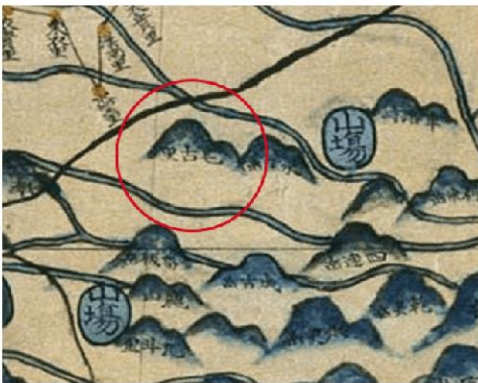
## 개의 형상을 닮은 ‘모구리 오름’ · ‘개월이오름’

개의 형상을 닮은 모습에서 유래된 지명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에는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개의 형상이라 하여 모구리 오름, 개가 달을 보고 짚는 모습과 같다는 설이 전해지는 셋개오리 오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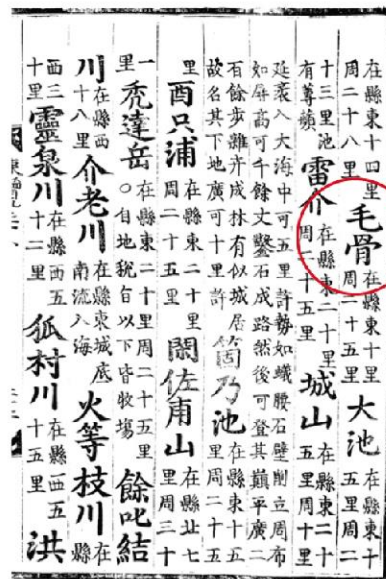


모구리오름과 모구리알오름의 새끼개를 품고 있는 어미개 형상

이 뿐만 아니라, 모구리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골(毛骨)’, 『1872지방지도(제주삼읍전도)』에 ‘모고리(毛古里)’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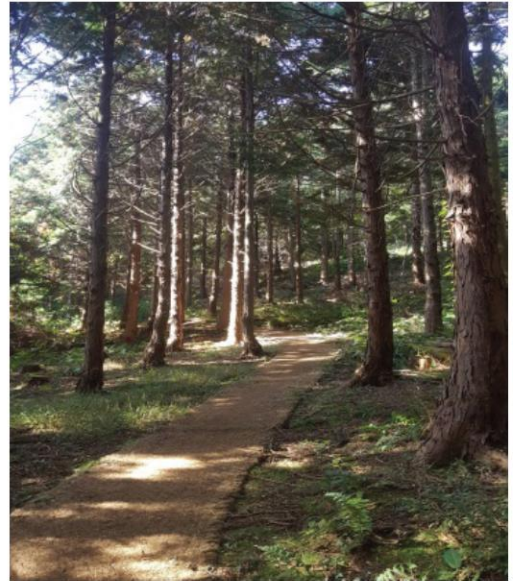
1872지방지도 제주삼읍전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증동국여지승람 모골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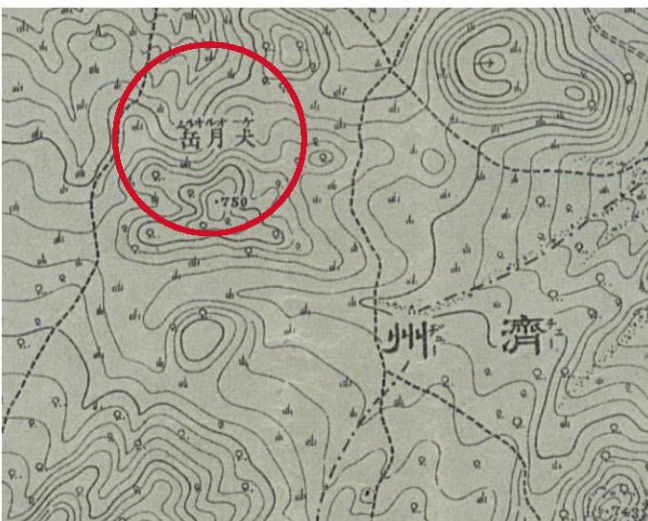
모구리오름은 산체가 크지는 않지만 오름 내부에 작은 알오름이 있는 이중구조의 오름으로 능선을 돌아볼 수 있게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정상에 오르면 일출봉과 함께 제주동부 지역의 조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모구리아영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왕복 약 30분정도 소요되는 모구리오름 탐방로는 오름전사면에 편백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삼림욕과 함께 청량한 제주의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숨은 명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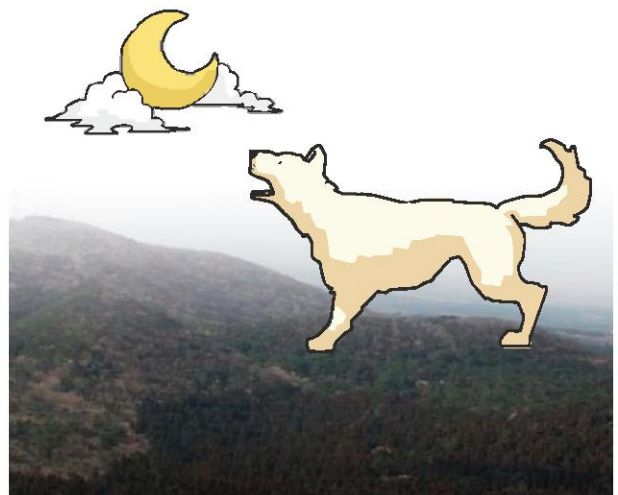


모구리오름 탐방로

또한 개가 달을 보고 짖는 모습과 닮아 견월악 이라 부르기도 하는 ‘개월리오름’은 셋개오리 오름이라고도 부릅니다. 셋은 사이(間)를 뜻하는 제주도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족은개월이, 셋개워리오름 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선지형도 견월악



개월리오름 전경  
(출처: 제주연구원, 오름종합계획)

## 재앙, 액운 등을 쫓아낸 신비로운 이야기 ‘견두산’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에 걸쳐 위치한 견두산(犬頭山)은 개의 머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개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견두산은 옛날 범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호두산(虎頭山)이라고 하였는데, 남원에서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일이 많아 남원 읍내에 돌로 호랑이 형상을 만들어 견두산을 향해 놓고, 산 이름 또한 견두산으로 개명한 결과, 재앙이 없어졌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견두산의 산봉우리가 개의 머리와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견두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남원), 『동여비고』(전라도), 『용성지』, 『대동여지도』(18첩4면), 『조선환여승람』에는 견수산(犬首山)으로, 『여지도』(남원지도), 『1872년 지방지도』(남원부지도), 『조선지형도』(구례)에는 견두산(犬頭山)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다양한 지리지와 고지도에도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역사 속 자료들로 하여금 영험한 이야기의 현장을 방문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 자료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제18첩 견수산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2년 지방지도 남원부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전설 속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개와 관련된 지명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왔으며, 개와 관련된 지명은 우리나라 많은 곳에 의미를 더하여 남겨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구덕마을'은 큰 덕과 편안함을 품고 있다는 개 관련 설화가 전해지는 마을입니다. 조선왕조 중엽 어느 지관(地官)이 우연히 이 곳을 지나다가 구덕마을의 지형을 보고 개 아홉 마리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였습니다.

보통 신세(신수)가 좋거나 팔자가 편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가리켜 팔자가 좋다 하면서 부러워하는데, 이 마을은 아홉 마리의 개가 누워 있는 동네 형국이 좋아보인다 하여 지관이 말하길 "이 마을은 아홉 마리 개가 큰 덕과 편안함을 품고 있으니 부자와 덕인이 배출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고사가 구전되어 내려와 개 구(狗), 큰 덕(德)자를 쓰기도 하고, 아홉 구(九), 큰 덕(德) 써 구덕이라 하기도 합니다.



구덕마을 전경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 조상의 얼을 간직한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치 있는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명 유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생활에 재미있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18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밝고 희망찬 새해, 풍성한 결실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